

486PC 2중 시판

(주) 금성사

금성사는 CPU(중앙처리장치) 교환으로 성능으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로컬버스와 윈도 가속기를 채용, 그래픽 처리능력을 대폭 향상시킨 486SX 및 486DX2 PC 신제품을 발표해 시판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제품(마이티 486스페셜시리즈)은 주기판상에 성능향상을 위한 오버드라이브 소켓을 제공, 시스템 성능을 486DX 33메가Hz, 486DX2 50메가Hz, 486DX2 66메가Hz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

또 32비트 로컬버스방식을 채택해 비디오 주변장치의 실행성능을 CPU와 동일한 속도로 높였다.

이와 함께 우수한 성능의 윈도 가속기를 장착함으로써 윈도 실행 속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250MB(메가바이트)급 고용량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와 각종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신모뎀, 4MB의 기본메모리를 64MB까지, 캐시메모리를 256KB(킬로바이트)까지 각각 늘릴 수 있는 메모리 확장성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256KS 램 SOP

테이프 릴 타입 공급

금성일렉트론 (주)

금성일렉트론(대표 문정환)은 표면실장 자동화 편의를 위해 기존 1M 및 4MD램 SOJ(Small Outline Package J-leaded) 제품에 이어 256KS램 SOP(Small Outline Package) 제품도 「테이프 앤드 릴」 타입으로 양산 공급한다고 밝혔다.

「테이프 앤드 릴」 타입은 반도체를 20~25개 단위로 튜브에 담아 공급하는 일반적인 「튜브」 타입과 달리 반도체를 테이프에 부착해 릴(Reel) 형태로 감아놓은 것으로 표면실장 장비에 1,000개 가량을 연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시간절감에 따른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IR52 장영실상 수상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과학기술처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매일경제신문사가 공동주관하는 'IR52 장영실 상'을 박진호 과학기술처차관으로부터 '93. 1월 9일 수상했다. 이번에 금성통신은 평소 각별한 열의를 갖고 기술개발에 주력한 결과 기술성과 경제성이 탁월한 휴대전화기 GSP-100을 개발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였으며, 금성통신 휴대전화기 GSP-100은 'IR52 장영실 상'의 93년도 제4주 수상제품으로 선정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업계관계자 및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 시상식에는 금성통신 백중영 사장이 과학기술처장관 명의의 'IR52 장영실 상' 상패와 휴대전화기의 연구개발 주역이었던 연구소의 김영철 선임, 조준호 선임, 강성모 주임 연구원과 안양공장

설계실의 구재익 주임연구원은 상장 및 메달을 수상했다.

이번에 'IR52 장영실 상'의 수상제품인 휴대전화기 GSP-100은 연구인원 20명이 '89년 6월부터 25억원의 개발비를 투자하여 '92년 2월에 상품화에 성공, 인기리에 시판 및 수출해 오던 제품이다.

유무선/도어폰 복합형전화기 시판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유선전화기에 무선휴대장치 3대, 도어폰까지 연결하여 사용하는 다기능 복합형 전화기(모델명: 금성테크폰 패밀리 GT-370E)를 이달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성테크폰 패밀리 GT-370E의 주요 특징을 보면 휴대장치의 액정표시판으로 8가지 전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정장치의 LED표시판으로 7가지 전화사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고정/휴대장치에 광다이얼기능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다이얼이 가능하고, 기억된 단축번호의 확인이나 전화를 걸기전에 단축번호 및 다이얼한 전화번호를 눈으로 확인한 후 송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프리 다이얼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정보통신 硏 설립 대한전선 (주)

대한전선(대표 유채준)이 고도 정보통신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근 정보통신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달초 기존 기술연구소의 3개 연구부와 정보통신공장의 소프트웨어부, 기술 1, 2부 등을 통합해 신설된 정보통신연구소는 30여명의 연구인력을 갖추고 첨단 정보통신 관련제품의 연구와 생산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소는 우선 단말기 중계기 등 광시스템 응용분야의 제품개발을 본격화하고 CATV기기와 화상회의시스템 등의 국산화 연구도 강화할 계획이다.

48시간 초간편 예약기능 공기방울 세탁기 2종 개발 대우전자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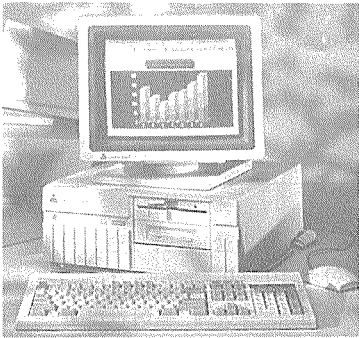
대우전자는 최근 7단계 전자동세탁코스로 48시간 초간편예약 세탁을 가능케 한 7.5kg대의 원적외선 공기방울 세탁기 2개 모델을 개발, 곧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대우전자는 이 신제품이 출시되면 5kg대 2개 모델, 6kg대 4개 모델, 7kg대 2개 모델, 8kg대 2개 모델 등 모두 10개 모델을 보유하게 되며 7kg대 이상의 대용량 제품은 4개 모델로 늘어나게 된다.

이 신모델은 48시간 초간편 예약기능을 추가해 외출중에도 세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외에도 기존제품의 세탁코스에 기억코스를 추가해 자주 사용하는 세탁과정을 기억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통신 PC, 미국서 최우수제품에 선정

대우통신 PC,
미국서 최우수제품에
선정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이 미국 현지법인 리딩에지사를 통하여 미주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486DX기종 PC제품(모델명 : Leading Edge D4/DX2-50)이 최근 미국의 유력 컴퓨터전문지 「PC월드」 신년호에 최우수제품(Best Buy)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최우수제품으로 선정된 ‘리딩에지 D4/DX2-50’ 모델은 인텔 486DX칩을 사용한 제품으로 8MB의 주기억용량(32MB까지 확장 가능)에 최대 66MHz의 내부 처리속도를 갖고 있다. 또한 3개의 플로피디스크 드라이브(5.25" 및 3.5")를 장착할 수 있으며 6개의 16비트용 확장 슬롯을 장착하고 있다.

한편 대우통신은 올해에도 486기종과 칼라 노트북을 주력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위해 기존 유통망 외에 수퍼스토어, 월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점 등을 통한 판매를 강화 시킨다는 전략 아래 올해 2억 5,000만불의 수출 목표를 잡고 있다.

영국에 486PC 수출

영국에 486PC
수출
(주) 삼보컴퓨터

삼보컴퓨터가 여행자 예약시스템을 독점하고 있는 영국의 갈릴레오사에 올해 600만 달러어치의 486PC 6,000대를 수출한다.

삼보컴퓨터(대표 김종길)는 갈릴레오사에 468SX25M PC를 3년동안 공급키로 하고 올해는 600만달러어치(6,000대)를 수출키로 했는데 향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갈릴레오사는 영국에 소개한 유럽 최대의 IBM사이트로서 갈릴레오 컴플렉스 타운을 형성하고 있으며 IBM메인프레임 장비만 3억 파운드에 달해 전세계 여행자 예약시스템을 24시간 온라인으로 데이터 베이스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약은 IMB만이 획득했던 그동안 미국일본도의 국내업체 수출환경에서 탈피, 유럽진출전망을 밝게 해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SAW 필터 사업 강화

SAW 필터 사업
강화
삼성전기 (주)

삼성전기(대표 윤종룡)가 지난해 삼성종합기술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SAW(Surface Acoustic Wave 표면탄성파) 필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동사는 이를 위해 컬러 TV·VCR·이동통신기기의 핵심부품인 SAW필터의 생산 규모를 늘리고 생산기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기초 원자재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해까지 월 5만개씩 생산해온 NTSC방식과 PAL방식의 컬러 TV·VCR용 5대기종을 올려 10억원의 연구개발 및 시설 확

대비를 투자, 10만개로 늘렸으며 하반기부터 20만개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동사는 유럽에서 사용하고 있는 PAL방식의 전기종(20여종)을 개발 완료하고 국내 및 일본·미국방식(NTSC)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채널의 영상·음성·소리신호의 주파수 대역만을 분리 통과시키는 표면탄성과 필터의 각종 제조기술을 확보, 기종을 다양화하는 한편 기초 원자재인 리튬니오베이트(Li NbO₃)·리튬탄탈레이트(Li TaO₃)의 압전단결정 웨이퍼를 국산화해 연간 200억원의 수입 대체실적을 올릴 계획이다.

7인치 프로젝션

브라운관 개발

삼성전관 (주)

삼성전관(대표 박경팔)은 30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2년간의 연구 끝에 일본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7인치 PJT(Projection Tube)를 개발하는데 성공하고 이달부터 월 200대씩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동사의 이번 프로젝션 브라운관 개발로 연간 80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HDTV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사가 개발한 프로젝션 브라운관은 기존 프로젝션 브라운관이 대화면구성은 가능하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 자체 집속형 포커스방식을 채용, 320라인에 불과한 기존 TV해상도보다 월등히 높은 1,000라인의 수평해상도를 실현할 수 있어 기존 프로젝션 TV보다 3개이상의 고해상도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사는 이번 프로젝션 브라운관은 텅스텐에 바륨을 함침시킨 합침형 캐소드(전극관)를 채용, 단위면적당 전자빔 조사율을 기존 탄산염 캐소드에 비해 10개 가까이 높였으며 스크린 입력파워가 cm²당 2W급인 고밀도 형광막을 장착, 해상도와 휘도가 뛰어나다고 밝혔다.

동사에 따르면 HDTV용 프로젝션브라운관은 투사렌즈의 확대에 따라 전면투사형 TV는 물론 배면투사형 TV에 적용, 40인치에서 2백인치까지 TV화면구성이 가능하고 캐드캠 및 그래픽모니터용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IBM사와 PC대량

공급 계약 체결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세계적인 컴퓨터 업체인 미국의 IBM사와 장기간의 협상을 거쳐 25만대 규모의 PC 수출 계약을 체결, 향후 2년간에 걸쳐 이들 제품을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으로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동사는 세계적인 컴퓨터 업체인 IBM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제품의 품질 및 신뢰도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되

었으며, 향후 2년간의 안정적인 생산물량을 확보하고 자가 브랜드 제품의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금번 계약은 단순 하청 OEM 생산이 아닌 제품의 설계, 생산 및 품질 보증의 상당부분을 삼성전자가 책임을 지는 공동개발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계약 물량인 25만대는 작년 한해 동안의 국내 총 PC 수출 물량의 절반을 상회하는 규모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봉착해온 국내 PC 수출 구조에 활력소를 제공하는 일대 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가 IBM에 공급하게 될 제품은 386 및 486SX 데스크탑(Desk Top) 기종으로 본체와 모니터가 일체형 구조로 이루어진 고성능 제품인데, 외관이 주는 콤팩트(Compact)한 이미지와는 달리 최적의 제품설계를 통해 내부공간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확장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계약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쌓아온 삼성전자의 기술수준 및 품질관리 능력이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향후 수출 전망을 밝게 해주는 청신호로 평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바탕으로 주기판(Main Board)에서 모니터, 각종 보조기억장치, 칩셋(Chip Set) 등 일련의 부품을 국산화해 자사 제품에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에 사용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개발한데 이어 무선통신이 가능한 펜 팜(Pen Palm) PC의 개발에도 성공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 면에서도 업계 최초로 EMI(전자파 장애) 검증에 합격한데 이어 국내 컴퓨터 업체로는 유일하게 컴퓨터 전제품에 대한 ISO(국제표준화기구)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이들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산 설비를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컴퓨터 생산업체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국내에서 가장 값싼
팩시밀리 개발!**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통신기능을 대폭 강화한 국내 최고가 FAX(모델명 : STAFF-3) 개발에 성공, 이달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선보인 STAFF-3은 통신 기능은 대폭 강화하면서도 가격은 국내 최저가로 하기 위하여 개발단계부터 목표에 대한 손익관리 체제로 전환, 모델 및 부대회로가 복잡하게 연결되던 구조를 Fax엔진 컨트롤러 개발을 통해 1칩으로 단순화 시켰으며, 기구물의 금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원가를 30% 이상 절감시킨 Fax이다.

가정용 수요 및 개인사업자, Fax 과외업체 등을 목표시장으로 하

는 이 제품은 전화기 일체형 A4 송·수신 제품으로 원고를 5매까지 자동급지(ADF)할 수 있고, 미세하고 작은글씨를 보낼 때에는 가는 글자모드, 연필로 쓴 원고나 희미한 원고를 보낼 때에는 흐린 원고모드 키를 설정하면 선명한 화질로 송신할 수 있다.

또한 문서의 송신후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고자 할 때 송신중에 통화예약 버튼을 눌러주지만 하면 송신이 완료된 후 자동으로 상대방을 호출하여 주는 통화예약기능, 별도의 전화기와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증설전화 접속기능, 통화중에도 Fax로 손쉽게 연결되는 원격 수신기능 등의 첨단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은 전화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5개의 원터치 다이얼, 10개의 투터치 다이얼 및 온·오프 다이얼 기능과 자동응답 전화기와 접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동응답 전화기 접속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도움말 기능을 이용해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간편기능, Free Volt 기능 등이 있어 장소 변동에 따른 전원 변환의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삼성종합기술원

D-VDR 시작품
개발
삼성종합기술원

광자기디스크에 녹색레이저로 디지털음향 및 화상정보를 장시간 기록, 재생할 수 있는 D-VDR(디지털-비디오스크레코더)가 시작품으로 개발됐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직경 13cm의 소형광자기디스크에 6.3기가바이트(1기가바이트는 10억바이트)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D-VDR를 국산화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용량은 CD(컴팩트디스크) 음질과 LDP(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 화질을 110분간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LDP를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영상기이다.

삼성측은 532나노미터(1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의 짧은 파장을 갖는 녹색레이저를 이용, 음향 및 화상정보를 기록 재생하기 때문에 적외선레이저를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기록 및 재생방법보다 광자기디스크의 기록밀도를 7.2배나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작품이 상용화될 경우 차세대 가정용영상기기로 현재의 LDP 및 VTR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된다. LDP의 경우 고화질이고 수명이 긴 이점이 있으나 디스크사이즈가 직경 30cm로 크고 재생만 가능해 D-VDR보다 기능이 뒤진다. VDR는 현재 일본의 소니 NEC 파이어니 등을 중심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디지털방식과 아날로그방식이 혼용되고 있고 기록재생시간이 모두 60분을 넘지 못하고 있다.

삼성종합기술원

평면 4각
TV 시판

아남전자(대표 김주연)는 최근 돔사운드스피커를 내장, 서라운드 기능을 높이고 S-VHS 단자를 채용한 29인치급 평면사각 모니터TV

아남전자 (주)

(모델명 CVM-2949 AI)를 개발, 오는 3월부터 시판에 나설 방침이다.

이 모니터 TV는 수평해상도 800본에 인바새도마스크 방식의 평면사각브라운관을 채용했으며 흑레벨보정회로와 COMB회로·NOTCH회로 등을 내장,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질을 재현토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내부공명을 줄여 음의 재생력을 높인 돔사운드스피커시스템과 서라운드회로를 내장하고 S-VHS 단자와 비디오테이프·출력단자·외부스피커연결단자 등을 채택해 CATV시청 및 AV시스템구성이 용이하도록 했으며 자체시계를 내장해 예약기능을 갖도록 했다.

컬러TV 생산

(주) 인켈

인켈(대표 최석환)이 대형컬러TV의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이 회사는 최근 15억원을 들여 29인치 컬러TV 1개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이날부터 의정부 소재 카스테레오 공장에 별도 설치한 1개라인을 가동, 월 1,000개씩 양산을 시작한다.

인켈의 컬러TV 첫모델인 「ICT2900」은 오디오업체의 특징을 살려 정격출력 50W에 돌비프로직서라운드시스템을 채용, 레이저디스크나 비디오테이프를 재생할 경우 임장감을 최대한 살려주는 입체음향시스템으로 설계됐다.

또 무정전 난반사의 평면사각브라운관을 채택해 최고 수평해상도 800선의 고품질 화면재생이 가능하며 텍스탄도료와 특수 PVC그릴로 TV전면 3개와 스피커를 본체와 일체형으로 처리해 미려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올해 60억원의 TV 매출목표를 세운 인켈은 상반기중 2~3개 라인을 증설, 생산량을 늘리는 한편 21인치 및 25인치 제품도 곧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LAN 카드 제품

중동, 호주에 수출

(주) 큐닉스 컴퓨터

큐닉스컴퓨터가 국내업체로서는 처음으로 중동지역과 오세아니아 지역에 LAN(근거리통신망) 카드제품을 수출하게 됐다.

이 회사는 최근 자사 LAN 카드제품(QE2100T)의 해외수출을 위해 세계 각 지역에 샘플을 보내 성능을 시험한 결과 1차로 중동 및 오세아니아지역에서 소량의 수출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동사는 이들 2개 지역외에도 현재 유럽지역과 남미지역을 대상으로 수출 상담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4월중 선보일 저가형 LAN카드제품에 대해서도 수출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소·식

'93 매출목표 확대 한국 마벨 (주)

한국마벨(대표 김순중)은 올해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카 CDP용 데크, 원가절감형 카오디오 데크 등 신제품의 판매에 주력해 전년대비 42.1% 신장한 540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으로 있다.

지난해 말 네덜란드 필립스사로부터 CDP용 데크 기술을 이전받은 한국마벨은 최근 기술개발을 마무리짓고 다음달부터 이 제품의 양산에 돌입,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월 3,000개,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5,000개, 10월부터는 월 1만 5,000개씩 생산키로 했다.

자동선곡·테이프보호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원가가 20~30% 절감된 원가절감형 카오디오 데크도 다음달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보급형 버블젯 프린터 출시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보급형 버블젯프린터(모델명 피노비나 6400K)를 개발, 내달부터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프린터는 136컬럼의 대형용지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360DPI의 고해상도와 300CPS의 고속인쇄, 45db이하의 저소음이다.

또 용지의 급지방식 및 조작방식이 자동화돼 있고 자동급지장치를 선택 사양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한글 한자 영문 등 다양한 글자체를 자유롭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호환성 및 속도면에서 사용자의 편의를 증대시켰고 슬림형의 컴팩트한 디자인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동사는 이번 프린터 상품화를 위해 올해초 일본캐논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동사는 이 제품을 염가로 책정, 올해중 2만여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파워복용, 회장형 이더넷카드 등을 도입, 매킨토시 네트워크시장을 집중공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PC용 네트워크 시장공략을 위해 진보된 ISA버스방식의 이더넷카드와 토큰링카드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성일렉트론 (주) 주소변경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275
 럭키금성마포빌딩 3층
전화번호 : 대표전화 02) 787-1114
 02) 705-3800
FAX NO : 02) 706-9727
 02) 706-9729(업무부)